

黃帝內經, 그 解釋上의 諸問題

金 裕 成

I. 導 言

「黃帝內經」이 現存하는 東洋最古의 醫學理論書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는 「素問」과 「靈樞」로 나뉘어 있다. 여러 가지 證據들은 「素問」이 「靈樞」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戰國時代(B.C. 500~400)부터 漢代(B.C. 206~A.D. 8)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 完成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通說이다.¹⁾

오늘날 東洋醫學의 理論的 體系와 그 論理의 構成은 거의가 「內經」에서부터 起源한다. 秦越人の 「難經」과 張仲景의 「傷寒論」 그리고 金元四大家 및 그후 諸家들의 醫學理論들이 모두 「內經」의 範圍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²⁾ 或者는 이를 單純한 醫學書로만 보지 않고 東洋文明의 “landmark”가 되고 있다고까지 그 價値를 높이 評하기도 한다.³⁾

그러나 「黃帝內經」이 상당히 오랜 期間에 걸쳐 複數著者에 의해 쓰여졌으리라는 判斷과 原記錄의 亡失 및 後世로의 傳授過程에서 完璧을 期하지 못하였다는 事實들에서 若起된다고 볼 수 있는 文章의 重複, 意味의 曖昧성, 文章前後問의 矛盾 및 無連繫 등등의 理由들 때문에 原文自體를 理解하기 어려운 많

은 問題點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것들을 解決하기 위해 歷代의 注釋家들은 많은 努力을 傾注해 왔다.

最初의 注釋家들은 梁의 全元起, 隋의 楊上善, 唐의 王冰으로 알려졌다. 그 뒤의 重要한 注釋家들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 (1) 明·馬蒔 「內經素問註證發微」, 1586.
- (2) 明·吳崑 「黃帝內經素問吳註」, 1594.
- (3) 明·張介賓 「類經」·「類經圖翼」, 1624.
- (4) 清·汪昂 「素問靈樞類纂約注」, 1686.
- (5) 清·高世祚 「黃帝素問直解」, 1695.
- (6) 清·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1672.
- (7) 清·黃元御 「素問懸解」, 1756.
- (8) 日·多紀元簡 「素問識」, 1806.
- (9) 日·多紀元堅 「素問紹識」, 1846.
- (10) 日·喜多村直寬 「素問講義」, 1854.
- (11) 日·森立之 「素問考注」, 1865.
- (12) 韓·李圭峻 「黃帝內經素問大要」, 1906.

이 外에도 여러 研究가 있어 「內經」 讀者들에게 많은 便宜를 提供하고 있지만, 아직도 解決되지 않은 部分이 많다. 이러한 難解點들은 根本的으로, 傳해진 原文의 缺落 때문이다. 數千年을 지나면서 風雨에 磨滅된 碑石

의 殘片에서 그 原文을 復元할 수 없는 源泉的 限界가 있다. 그 외에 人爲的 變造도 있었고 4) 傳寫過程에서 誤字나 脫字도 있었다고 믿어진다. 이들은 그 原本이 다시 發見되지 않는 限 永遠한 疑問속에 남아 있게 될 問題들이다. 이들에 대한 自意的인 推測이나 상상은 別로 意味가 없다.

따라서 本源的인 限界에 부딪치는 것 외에 單純히 그 解釋上의 問題로 그 原義가 曲解되거나 意味傳達이 안되는 몇가지를 指摘하고 이에 對한 새 解釋을 提示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論文의 目的이다.

II. 解釋上의 問題들

1.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에 대하여

이 글은 「素問」, 生氣通天論 첫 머리와 六節藏象論 앞 部分에 나오는 本文이다.⁵⁾

<釋 例>

王氷은 이에 대하여 生氣通天論에서는 言及을 하지 않고, 六節藏象論에서 注釋을 다음과 같이 하여,

“通天謂元氣 卽天真也 然形假地生 命惟天賦 故奉生之氣 通繫於天 稟於陰陽 而爲根本也 寶命全形論曰 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 四氣調神論曰 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又曰 逆其根 則伐其本 壞其

眞矣 此其義也” 6)

아무런 論證없이 “通天”을 元氣 卽天真이라고 하였다.

張志聡은,

“凡人有生 受氣于天 故通乎天者 乃所生之本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故生之本 本乎陰陽也” 7)

라 하였고, “自古”에 대해서는 朱濟公의 말인 自古者 言自上古天真所生之氣也를 引用해 自身도 이에 同調함을 表示했다.

高世栻은,

“自古通天者 乃有生之本 本乎人身之陰陽” 8)

이라고 注釋하였다.

其他의 것들도 以上 三家의 範圍를 넘지 않고 있음이 지금까지의 解釋이다.

<疑 問>

王注에 의하면, “通天”은 元氣이고 이것은 바로 天真이라 하여, 하늘에 通하는 것 즉 元氣가 生의 本이고 이것은 陰陽에 根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元氣가 生의 本이고 이것이 陰陽에 根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寶命全形論 및 四氣調神論의 本文을 引用해 王氏 特有的 以經解經의 方法으로 그 뜻을 說明하고 있지만, “通天→元氣=天真”이라는 解釋이 어떻게 可能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說明이 없다.

古典解釋에서 이와 같이 아무런 論證없이 自意的인 判斷을 내리는 것은 매우 危險하다. 汪昂은 말했다. 이러한 行爲는,

“原書의 面目을 잃게 되고 나아가 後學을 誤導해 疑惑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며 先聖에게 罪를 짓는 일”⁹⁾

이라고 痛烈히 非難했다.

王은 “自古”라는 本文의 意味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無視해 버렸다.

“自古”라는 말을 구태여 쓴 理由가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傳達되는 메시지가 分明히 있을 것이다.

張의 解釋은,

“모든 사람에게 生이 있음은 氣를 天에서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天에 通하는 것이 바로 所生의 本이다. 天은 陰陽五行으로 萬物을 化生하기 때문에 生의 本은 陰陽에 根本한다.”

는 것이다. 그 解釋의 脈絡이 王과 비슷하다. 그리고 “自古”에 대해서는,

“上古로부터 天真은 所生의 氣이다.”

라는 朱濟公의 見解에 同意하고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 “天真”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高의 解釋 또한,

“예로부터 通天者는 바로 生의 本을 갖게 되고 이것은 人身의 陰陽에 根本한다.”

라고 하여 앞의 二家의 說과 文脈이 같은데 다만 陰陽을 人身의 陰陽이라 한 것이 다르다.

以上 王·張·高 三人의 解釋에서 共通의 指摘되는 것은,

“通天者가 生之本이다.”

라는 自家의 視角을 먼저 固定시켜 놓고 本文을 解釋하고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그들의 努力 또한 여기에 맞추기 위한 것에 不過하다. 구구한 注釋들은 사람이 氣를 天에서 稟受한다는 說明에 지나지 않고, 生之本이 陰陽에 根本한다는 것은 本文 自體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니 달리 注解를 要하지 않는다. 要는 “通天者가 어떻게 生之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疑問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筆者의 見解〉

本文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은 별다른 흠이 없는 文章인 것 같다. 그런데 注家들은 “通天者가 生之本이다”라는 틀 속에서 이에 대한 意味를 賦與하고자 온갖 努力을 쏟았지만 解感에 失敗하였다. 그 理由는 바로 設定한 그 틀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에 起因하는 것 같다. 따라서 筆者는 注家들의 先入見을 버리고, 字義에 따라 그 뜻을 캐며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를 풀어 보고자 한다.

먼저 “通天”의 뜻을 찾아 보면, “通”은 四通八達이니 直達旁通이니 하는 用例에서 알 수 있듯이 어디에 이른다는 到達의 意味가 있다. 또 「易」, 繫辭上에 “曲成萬物而不遺 通乎晝夜之道而知”라는 글이 있는데, 그 疏에서 通을 “通曉於幽明之道 而無事不知也”라고 解釋하고 있으니, 무엇을 환히 안다는 通曉의 意味가 또 있는 것이다. “通”의 意味로 到達과 通曉가 있음을 確認했다.

그리고 “天”에 대한 意味인데, 馮友蘭은 天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五種으로 區分했다.

“在中國文字中 所謂天 有五義；曰物質之天 卽與地相對之天，曰主宰之天 卽所謂皇天

上帝 有人格的天宰, 曰運命之天 乃指人生中吾人所無奈何者 如孟子所謂「若夫成功則天也」之天 是也, 曰自然之天 乃指自然之運行如荀子天論篇所說之天 是也, 曰義理之天 乃謂宇宙之 最高原理 如中庸所說「天命之謂性」之天 是也” 10)

이를 參考로 本文에 쓰여진 天의 意味로 擇할 수 있는 것은 地와 相對로서의 天인 物質之天과 自然의 法則으로서의 天인 自然之天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以上の 資料를 가지고 “通天”의 解釋이 될 수 있는 例를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地와 相對되는 天에 到達한다.
- ② 自然의 原理인 天에 到達한다.
- ③ 地와 相對되는 天을 환히 안다.
- ④ 自然의 原理인 天을 환히 안다.

다음은 “自古通天者”의 解釋이다. 이에 대한 解釋도 두 가지가 可能하다. “學者”라고 하면 學이라는 것과 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듯이 말이다. 그리고 文頭에 있는 “夫”字는 指示詞로서 文尾에 있는 “者”字와 呼應하여 그 사이에 있는 “自古通天”을 두드러지게 浮刻시키는 機能을 한다. 「論語」에 “夫仁者” 또는 “夫二三者也”의 例가 그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서 풀이한 “通天”의 意味들을 代入해 “夫自古通天者”를 解釋해 보자.

- ① 저 예로부터 하늘에 이르는 것 또는 이르는 그 사람
- ② 저 예로부터 自然原理에 이르는 것 또는 이르는 그 사람
- ③ 저 예로부터 地의 相對인 天을 환히 아는 것 또는 아는 그 사람

- ④ 저 예로부터 自然原理를 환히 아는 것 또는 아는 그 사람

이렇게 4가지의 解釋이 可能하다. 그러면 이제는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에서 “生之本”이 “通天者”의 述語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通天者”가 通天이라는 行爲 自體를 意味할 수도 있고 通天의 行爲者를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앞에서 알았다. 그렇다면 一般的으로 어떤 行爲나 그 行爲者가 具體的 意味인 “生之本”이 될 수 있을까. 注家들의 解釋을 實際로 適用해 보자.

- ① 저 예로부터 하늘에 이르는 것 또는 이르는 그 사람이 生의 本이다.
- ② 저 예로부터 自然原理에 이르는 것 또는 이르는 그 사람이 生의 本이다.
- ③ 저 예로부터 地의 相對인 天을 환히 아는 것 또는 아는 그 사람이 生의 本이다.
- ④ 저 예로부터 自然의 原理를 환히 아는 것 또는 아는 그 사람이 生의 本이다.

여기서 ④의 境遇 하나만을 가지고 음미해 보겠다. 自然의 原理를 通曉하는 것은 知識이다. 知識이 生之本이 될 수 없다. 또 自然의 原理를 通曉하는 者는 바로 聖人이다. 聖人이 生之本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文章에서 “生之本”은 “夫自古通天者”의 述語가 아니다. 바로 “本於陰陽”의 “本”字가 이 文章의 述語動詞(predicate verb)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 文章은,

“夫自古通天者는 生之本을 陰陽에 本한다.”

라고 解釋되는 것이다. 따라서 生之本을 陰

陽에 본해야 하는 主語인 通天者는 自然히 사람일 수 밖에 없다. 이제 여러가지로 解釋이 可能한 例들 中에서 選擇은 決定되었다.

“저 예로부터 自然의 原理를 환히 안 사람은 生의 本源을 陰陽에 根本하였다.”

이것을 筆者는 「內經」의 本文 “夫自古 通天者生之本本於陰陽”의 解釋으로 提示한다. 그리고 修飾語 “自古”가 구태어 쓰여진 所以는 本文의 陳述이 歸納的 判斷이라는 뜻을 讀者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省略할 수 없다.

2. 四維相代 陽氣乃竭에 대하여

이는 「素問」, 生氣通天論에 나오는 말이다.¹¹⁾ 問題가 되는 것은 “四維相代”의 解釋이다.

<釋例>

王冰은 “筋骨血肉 互相代負”¹²⁾라 하였고, 張介賓은 生氣通天論 本文 中에 나오는 病症들인 “內閉九竅 外雍肌肉 衛氣散解”가 그것이라 하였고, 高世栻은 “四肢行動不能 彼此借力 而相代也”라고 하였고, 姚止庵도 四維를 “四肢”라 하였다.¹³⁾

<疑問>

維의 本來의 뜻은 物件을 묶는 굵은 밧줄을 말한다. 그래서 묶는다는 繫의 뜻도 있고 가닥이라는 綱의 뜻도 있다. 따라서 “四維”라 함은 어떤 特定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 4가지로 區分되는 어떤 德目이거나 方位 또는 基準 등으로 通用된다.

「管子」, 牧民篇에 “四維不張 國乃滅亡”이라는 글이 있다. 여기서 四維는 禮·義·廉·恥를 두고 한 말이다. 또 方位로서 乾·坤·良·巽을 가리켜 四維라고도 한다. 東南·東北·西南·西北의 方位들인 것이다. 「素問」氣交變 大論에,

“土不及 四維有埃雲潤澤之化 則春有鳴條 鼓折之政 四維發振拉飄騰之變 則秋有肅殺霖 霍之復”¹⁴⁾

이라는 글이 보이는데, 王冰은 여기서 四維를 “東南·東北·西南·西北”의 方位라고 注釋하였다.¹⁵⁾

그런데 生氣通天論의 四維는 “筋·骨·血·肉”으로 解釋하였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注家들간의 見解도 一致하지 않는다. 共通되는 것은 自己들의 注釋에 대한 納得할 만한 論證을 提示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疑問이다.

<筆者의 見解>

生氣通天論 本文에 보면, 四維相代 陽氣乃竭 바로 앞에,

“因於寒…… 因於暑…… 因於濕…… 因於氣……”¹⁶⁾

라는 말이 있고, 同論 끝 部分에 가서는,

“春傷於風…… 夏傷於暑…… 秋傷於濕…… 冬傷於寒…… 四時之氣 更傷五藏”¹⁷⁾

이라는 글이 있다.

이렇게 生氣通天論 全篇을 놓고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四維”가 果然 무엇을 가리

키는 것일까 示唆하는 바가 있다. 바로 “風·寒·暑·濕”인 것이다. “因於氣”의 氣는 風으로 바꾸어 볼 수가 있다. 「素問」, 陰陽應象 大論에 “陽之氣 以天地之疾風 名之”¹⁸⁾ 라고 하였다.

또 다음과 같이 方位와 六氣와 四時를 各 對應시켜 보면 이것이 더욱 分明해질 것이다.

| 卦 | 方位 | 六氣 | 四時 |
|---|----|----|----|
| 乾 | 西北 | 寒 | 冬 |
| 坤 | 西南 | 濕 | 秋 |
| 艮 | 東北 | 風 | 春 |
| 巽 | 東南 | 暑 | 夏 |

그리고 “四維相代 陽氣乃竭”과 “四時之氣 更傷五臟”이란 말은 表現만 다르지 그 內容的인 意味는 같다고 할 수 있다.

3. “淖”字의 意味에 대하여

“淖”字는 「內經」, 全篇에 모두 12번이 나 나온다. 「素問」에서 5, 「靈樞」에서 7번이다. 그 本文의 例는 다음과 같다.

“剛與剛 陽氣破散 陰氣乃消亡 淖則剛柔不和 經氣乃絕”¹⁹⁾

“天溫日明 則人血淖液”²⁰⁾

“寒則血凝泣 暑則氣淖澤”²¹⁾

“寒多則凝泣… 熱多則淖澤…”²²⁾

“其德柔潤重淖”²³⁾

“穀入氣滿 淖澤注于骨”²⁴⁾

“肉不堅而淖澤”²⁵⁾

“膏者其肉淖… 脂者其肉堅”²⁶⁾

“陰陽和調 而血氣淖澤滑利”²⁷⁾

“尺膚滑 其淖澤者 風也”²⁸⁾

“熱則… 皮膚緩 腠理開 血氣減 汗大泄 皮淖澤”²⁹⁾

“脈淖澤者 刺而平之 堅繁者 破而散之”³⁰⁾

本 “淖”字에 대한 考察은 筆者가 이미 大邱韓醫科大學 「論文集」 第4輯(1986)에 發表한 바 있다.³¹⁾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簡略하게 論하고자 한다.

먼저 「素問」, 陰陽別論에

“剛與剛 陽氣破散 陰氣乃消亡 淖則剛柔不和 經氣乃絕”

이라는 句를 놓고 보자. 歷代의 注家들은 이 本文에 대하여 그 句讀을 모두

剛與剛 陽氣破散 陰氣乃消亡 淖則剛柔不和 經氣乃絕

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淖”字에 대한 字義에 별다른 穿鑿이 없이 王冰은 “血淖者 陽常勝”, 張介賓은 “淖謂寒濕妄行”, 馬蒔는 “所謂剛與剛者 血氣俱淖之謂也”, 張志聰은 “淖 和也”, 高世栻은 “淖者 柔與柔相合也” 楊維傑은 “淖 陰氣太過也”, 王琦는 “淖濕也 濁也”라고 注釋하였다. 이리하여 讀者들은 그 애매성 때문에 當惑感을 拂拭하지 못하는 것이다.

筆者의 本文解釋에 대한 見解는 이러하다.

첫째는 그 句讀中에 陰氣乃消亡 淖則剛柔不和를 “陰氣乃消 亡淖則剛柔不和”로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淖字를 潮의 古字인 “淖”로 보자는 것이다.

淖와 淖는 그 字形이 매우 비슷해 서로 誤記되는 例가 많다고 「康熙字典」, 辨似에서도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推論이 可能하다면,

亡潮 = 無潮 → 血之無潮로 볼 수 있고, 그 뜻이 氣血의 正常的인 流出入 卽 潮水와 같이 定規的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生理機轉이 없게 된다는 것이므로, 그 結果 剛柔가 不和하고 나아가 經氣의 흐름마저 斷絶되리라는 것이 쉽게 理解될 것이다. 潮의 意味는 潮汐之潮 또는 水之漲落으로 나와 있다.

“淖”가 淖의 誤字일 것이라는 根據의 하나로 「內經」, 全篇에 “潮”字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매우 示唆的이다. 다만 「素問」 遺篇中の 하나인 本病論에 “涎潮”라는 말이 있어 그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이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後世의 僞作이라 「內經」 形成當時의 文字가 아닐 수 있다. “潮”字는 秦의 程邈이 隸書를 쓰면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說文」, 段王裁의 注를 통해 確認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淖”字의 通用年代를 미루어 「內經」의 形成年代를 具體的으로 推定할 수도 있다.

「內經」, 全篇에 “淖”字로 構成된 語彙의 頻度는 亡淖1, 重淖1, 肉淖1, 淖液1, 淖澤8로 “淖澤”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이 “淖”字에 대한 諸家들의 注釋을 總括해 보면 陽常勝, 陰氣太過, 寒濕妄行, 剛與剛 血氣俱淖, 柔與柔相合, 不和則爲淖, 和也, 濕也, 濁也, 亂也, 濡潤, 滑利, 沸騰, 滿溢, 泥濕 등과 같이 各樣 各色이며 서로 矛盾되는 것도 많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淖”의 意味를 모두 檢討하기는 紙面이 許諾치 않는다. 상세한 것은 筆者가 이미 發表한 論文을 參考하기 바란다. 다만, 이 “淖”字가 柔弱하다는 뜻의 “淖”字로도 쓰이고 있는 用例가 있음을 考慮하여, 12例文 모두에 “淖·淖·淖” 三

字中 하나를 選擇的으로 適用시켜 解釋하여 보았고, 거기에서 全體文義의 一貫性 乃至 會通性을 조심스럽게 點檢한 結果 나름대로의 有意性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附言해 둔다.

Ⅲ. 結 言

東洋醫學은 「內經」을 基礎로 成立되었다. 原理的으로는 지금도 「內經」의 規範을 넘지 못하고 있다. 生理·病理·經絡·藏府의 모든 理論이 오로지 이에 依해 構成되고 體系化되었다. 黃帝·岐伯이 門을 열고 越人·仲景이 繼承해 劉·李·朱·張에 와서 偏長을 보이고 東武³²⁾에 이르러 轉機를 試圖함이 같은 淵源에서다. 「內經」이야말로 東洋醫學의 無盡藏의 寶庫이며 始이고 終이다.

或者是 말한다. 「內經」은 儒家의 「五經」과 같고 偏鵠과 長沙의 說은 孔子와 孟子의 書와 같다고³³⁾ 참으로 適切한 비유라 생각된다. 그런데 바로 이 點에서 우리는 反省해야 할 必要를 느낀다. 儒家의 經典과 孔孟의 書는 그래도 거의 決定的인 注釋들이 벌써 오래 前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醫經의 境遇 그렇지가 못하다는 點이다. 靈胎 徐氏가 말했듯이 黃帝·神農·越人·仲景의 書는 文詞가 古奧하고 그 담긴 內容이 廣大深遠해서 淵博하고 通達한 사람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다³⁴⁾는 難點은 있다. 또 原本 自體의 不完全함도 매우 많다.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一致된 注釋書를 갖지 못하는 重要한 理由가 되고 있겠지만, 같은 理由로 해서 尙文者는 文才만을 자랑하고 偏見者는 固執만을 부리는

데서 百家爭鳴을 이루어 後學들을 迷路로 끌고 가는 結果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에게 「內經」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地球를 가졌다는 것과도 같은 큰 幸運이며 公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內經」을 잘 理解하여야 되고 또 잘 保存하여야 한다. 함부로 原形을 破壞해서도 안되고 自意로 그 뜻을 曲解해서도 안될 것이다. 實로 이미 잃어버린 原形을 찾을 수 없음이 매우 안타까우며 지금까지 「內經」의 眞意를 깨우친 사람이 果然 얼마나 될까 甚히 疑問이다. 심지어 劉河間·朱丹溪·李東垣까지도 「內經」을 제대로 理解하지 못했다³⁵⁾고 酷評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內經」을 읽으면서 平凡한 讀者의 한 사람인 筆者는 앞에서 擧論한 바와 같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거기에서 헤어나 보려고 몇 가지의 새로운 解釋을 試圖해 보았다. 이러한 것 自體가 또 하나의 疑惑의 要素를 添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한 諸賢의 叱正을 바라면서 原典解釋上的 考慮해야 할 一般原則들을 結論으로 提起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內經」속에 그대로 放置돼 아직도 빛을 發하지 못하는 숨은 寶物들을 우리는 繼續 發掘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1. 不完全한 原文을 強解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禮記」에는 “疑事無質”이라는 말이 있고, 孔子는 “疑者闕之”라는 말을 하였다. 疑心되는 일을 가지고 남에게 불모잡히지 말라는 말이고, 疑心나는 것은 일단 제쳐두라는 것이다.

2. 去頭切尾하고 斷章摘句해서 文脈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寧失其穴 物失其經”

이란 말은 文義把握에서도 適用되는 金言이다.

3. 文字에 대한 訓詁에 밝아야 한다. 王冰도 그의 「素問」序에서 “假若天機迅發 妙識玄通 藏謀雖屬乎生知 標格亦資於訓詁 未嘗有行不由逕 出不由戶者也”라 하였다.

4. 朱子는 「大學或問」에서, 疑心되는 文義를 解決하는 方法으로 “義理·文勢·事證”이라는 3가지 準則을 말했다. 이러한 基準에 의한 細心한 檢證이 必要하다.

5. 從來의 觀念論者들의 記述은 혼자서 지껄이는 妄言에 지나지 않으며 信賴할 수 있는 知識이 아니다 라고 하는 現代 分析哲學者들의 見解에 귀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그들은 傳統的인 形而上學의 많은 理論들은 言語의 理論的 構造를 잘못 理解한 데서 產出된 것이기 때문에 言語의 理論的 構造를 올바르게 보여줌으로써 傳統的 理論의 虛妄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6. 以上の 原則들이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根本原理에 대한 文獻的 接近의 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이어 臨床的 檢證이 뒤따랐을 때 이는 보다 더 一般化된 眞理로서의 價値가 賦與될 것이다.

註

- 1) 丸山敏秋; 「內經と中國古代醫學」, 東京, 東京美術, 昭和63年(1988), pp. 371-374.
- 2) “雖張李劉朱諸人 終身鑽仰 竟無能罄 其蘊奧焉”,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總目提要 子部 醫家類, 黃帝素問, 小注.

- 3) ILZA VEITH; 「The Yellow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p. ix.
- 4) 王氷은 그의 「黃帝內經」, 素問序에서, 自身の 便宜上 篇第도 바꾸고 文字도 添削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5) 王氷(注); 「黃帝內經素問」, 台北, 台灣中華書局, 民國 61年(1972), p. 34, p. 93.
- 6) 前掲書, p. 93.
- 7) 張·馬 合注; 「黃帝內經素問靈樞」,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民國 57年(1968), 素問, p. 16-17.
- 8) 高世祜;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 18.
- 9) “遂失原書之面目 得無疑誤後學 而獲罪乎先聖乎”, 「素問靈樞類纂約注」, 金藏書局, p. 2.
- 10) 馮友蘭; 「中國哲學史」上, 上海, 商務印書館, 民國 24年(1935), p. 54-55.
- 11), 12) 王氷(注); 前掲書, p. 37.
- 13) 程士德; 「素問注釋匯粹」上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39에서 再引用
- 14), 15) 王氷(注); 前掲書, p. 560.
- 16) _____, p. 36.
- 17) _____, p. 43.
- 18) _____, p. 70.
- 19) _____, 素問, 陰陽別論.
- 20) _____, 素問, 八正神明論.
- 21) _____, 素問, 離合眞邪論.
- 22) _____, 素問, 經絡論.
- 23) _____, 素問, 五常政大論
- 24) _____, 靈樞, 決氣篇
- 25) _____, 靈樞, 五變
- 26) _____, 衛氣失常
- 27) _____, 行鍼
- 28) _____, 論疾診尺
- 29), 30) _____, 靈樞, 刺節眞邪
- 31) 金裕成; 「黃帝內經」에 보이는 “淖”字에 대한 意味分析, 大邱, 大邱韓醫科大學 論文集 第4輯, 1986, p. 231-257. 以下 本節에 대한 脚注는 省略함.
- 32) 朝鮮朝末葉人, 名은 李濟馬, 東武는 그의 號이다. 醫藥·卜筮·經史에 能通하였다. 1894年(高宗 20年)에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해 四象人辨證에 依한 새로운 醫學體系를 提示했다.
- 33) 王士雄; “說者謂靈樞素問之言 如儒者五經 扁鵲長沙之論 如孔孟四子之書”, 徐靈胎, 「內經詮釋」, 序文.
- 34) 徐大椿; “黃帝神農越人仲景之書 文詞古奧 披羅廣遠 非淵博通達之人 不可學也” 「醫學源流論」中 醫非人人可學論.
- 35) 徐大椿, “劉則而崇內經 而實不能得其精義 朱則平易淺近 未觀本原 至于東垣 執而理脾胃之說 純用升提香燥 意見偏 而方法亂 胎誤後人”, 「醫學源流論」中 四大家論